

## 李容洙さん 2020年5月25日 記者会見 配布文書日本語訳

【翻訳:北村めぐみ】

私は慰安婦でした。

そのままの慰安婦ではなく、日本植民地支配期、日本軍の台湾駐留神風特攻隊の強制動員の慰安婦被害者でした。

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後、誰にも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私の人生の傷を大衆に公開したのが、1992年6月25日です。どうしても勇気を出すことが難しく、自分ではなく友達の話のように、当時、挺対協は偽りの被害を受け付けていました。

その後、1992年6月29日の水曜集会を皮切りに、当時の惨状と被害、そして人権蹂躪を告発し、私たち人類に再びこのようなこと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他の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と一緒に問題解決と人権運動を始めました。

お互いの存在も知らなかった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は、それぞれが経験した惨状と人権蹂躪を語り、抱きしめて涙で痛みをともにしました。

こうしてスタートした慰安婦被害者問題の解決に向けた闘争が30年を見据えています。この闘争を通じて、後ろ指を差され嘘に恥じた李容洙から、私自身の李容洙を見つけました。まず、亡くなった被害者のお姉さんと一緒に、この問題をあの李容洙さんが必ず解決したかったです。しかし、両国政府の誠意のなさにあちこちからんだ国際関係の中で、その結実はまだ見えていません。

私は前回の記者会見と立場文を通じて、今までやってきた方式では問題の解決はなお遠いという事を国民に申し上げながら、これから改善すべきことについて申し上げました。

しかし、私の記者会見以来展開されている状況は、私が期待したり予想していた状況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30年同志と信じた彼らの行動とは思えないことが明るみに出ている状況で、私は当惑と裏切り、怒りなど様々な感情を感じました。

しかし、私は二つは必ず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で今回の記者会見を準備しまし

た。私を含めた慰安婦被害者の名誉回復と日本の謝罪と賠償および真相の公開、そしてその間遂げてきた闘争の成果が毀損さ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私が慰安婦被害者という事実を告白した後、本当に長い年月を過ごしてきましたが、それ、にも私はこの道を守るために心を不断に引き締めてきました。

それで今日、この場で国民の皆さんに、お願いではないお願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私は、現在明らかになった問題は、我々大韓民国がこれまで成し遂げてきた市民意識に基づいて、矯正・修正されていくことを信じています。我々は、未来に向かう歩みを止めてはいけません。

その道に、“市民主導の方式”、“30年闘争の成果継承”、“過程の透明性の確保”の3つの原則が守られる前提の下、今後の私が考えている活動の方向性をいくつか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最初に慰安婦被害者問題の解決に向けた案が早急に出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です。長い歳月の間、近い家族にさえ被害の事実を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多くの被害者の名誉を回復できる、現実的で実現可能な案を、韓日両国政府と市民社会が責任を持って、速やかに膝を突き合わせて作らなければならぬと、申し上げます。

第二、前回の立場文でも申し上げたように、韓日関係の未来志向的発展のための具体的な交流方案及び両国国民間の共同行動などの計画を立てて推進し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第三に、韓日両国をはじめとする世界の青少年たちが、戦争によって平和と人権が蹂躪された歴史をもとに、人類が進むべき道とともに悩み体験できる“平和人権教育館”の建設を進めていけたらと思います。

第四に、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て専門的な教育と研究を進めて実質的な代案と行動を作り出すことができる機構を新たに構成して早急に被害救済等が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ぬと思います。

第五に、先に申し上げたことは、少数の名望家や外部の力に依存するのではなく、これまで挺対協と正義連名が成し遂げた成果を基に、韓国国民の力で新しい力量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ます。

第六に、今回の事態を機に、開放性と透明性に基づいた運営体系を整えるための論議が行われることを望みます” 事業の選定から運営規定、市民の参加方案、過程の共有と結果の検証まで、誰でも納得できるように深い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最後に申し上げることは、これまでこの運動が市民の支持と声援で成長してきただけに、市民の声を集めていく過程が必要だと思えます。私をはじめとした活動家、そして国民の皆様が、現在の状況をどのように解決すべきか戸惑っていると思えます。私は闘争過程の問題が公論化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たのですが、様々な問題が明るみになり、その過程が複雑になっていくようです。私には運動過程でたくさん支えてくれた皆さんがいます。まず、一歩を踏み出し、新しい道を開いてこられた方々が、明るい知恵をもって市民とともに問題を解決できるよう、ご協力のほど、よろしく願い申し上げます。

私は今年 93 歳です。私に残った時間はあまりありません。何かの利益を期待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被害者の意志とは関係なく、歴史の渦の中で無力に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我々の苦しみ二度と繰り返されないよう、そして未来の我々の子孫が加害者であったり被害者にならないことを願います。

今、皆が心配しているコロナ 19 ウイルスに対応する大韓民国の国民は、すでに新しい道を作り出しています。過去と現在と未来が共にその道を磨いていると思えます。どの道にも上り坂と下り坂は一緒です。大切なのは一歩だと思えます。

私たちのための皆の一歩を、これからは国民と一緒に歩んで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女性人権活動家 李容洙より。

저는 위안부였습니다.

그냥 위안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대만 주둔 가미가제 특공대의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해방 이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제 삶의 상처를 대중에게 공개했던 것이 1992년 6월 25일입니다. 차마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제 자신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당시 정대협에 거짓으로 피해를 접수했었습니다.

이후 1992년 6월 29일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당시의 참상과 피해, 그리고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우리 인류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문제 해결과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 존재도 몰랐던 우리 피해 할머니들은 각자 겪은 참상과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며 부둥켜안고 눈물로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손가락질과 거짓 속에 부끄러웠던 이용수에서 오롯한 내 자신 이용수를 찾았습니다. 먼저가신 피해자 언니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저 이용수가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말씀을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자회견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지로 믿었던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 참 힘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 길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부단히 다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온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교정되고 수정되어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길에 '시민 주도 방식', '30년 투쟁의 성과 계승', '과정의 투명성 확보'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전제하에 향후 제가 생각하는 활동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조속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번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들 간 공동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속히 피해 구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대협과 정의연이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사업의 선정부터 운영 규정, 시민의 참여 방안, 과정의 공유와 결과의 검증까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이 운동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해 온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활동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당혹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 과정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길 기대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과정이 복잡해질 듯 합니다. 제겐 운동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한 발을 내딛어 새로운 길을 열어오신 분들께서 밝은 지혜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93 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했던 우리들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그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길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은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두의 한 걸음을 이제 국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드림.